

한국어로 읽을 책들?



Global Storybooks

globalstorybooks.net

한국어로 읽을 책들?
Basilio Gimó, David Ker
Carol Liddiment
Michelle Kim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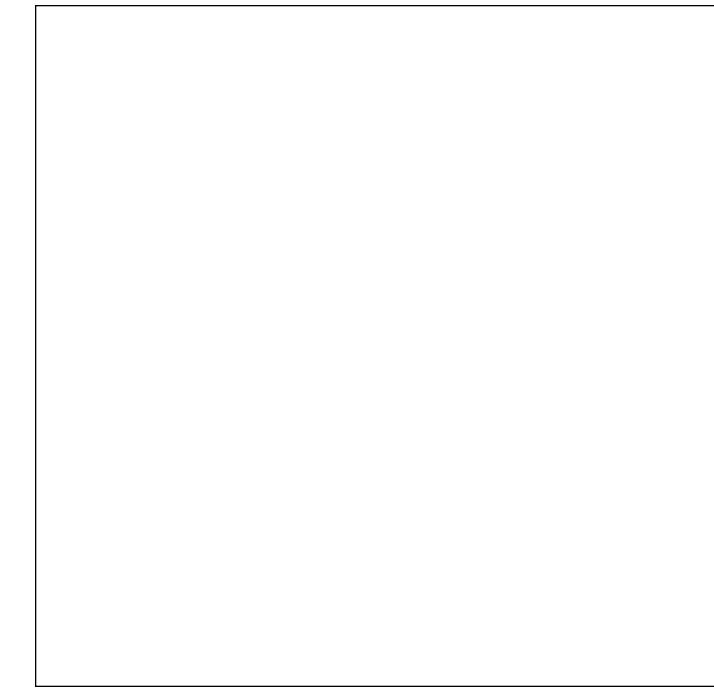


This work is licensed under a Creative Commons

Attribution 3.0 International License.
<https://creativecommons.org/licenses/by/3.0/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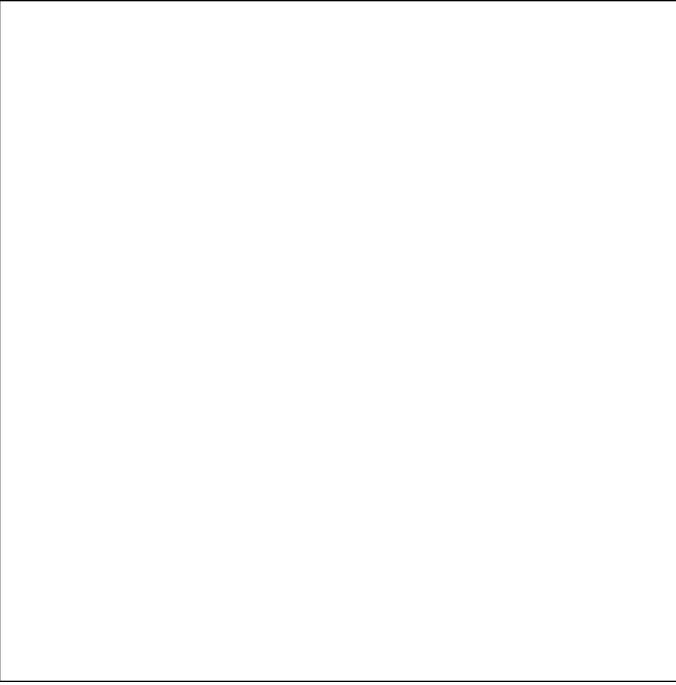
- 한글판
- 2
- Michelle Kim
- Carol Liddiment
- Basilio Gimó, David Ker



어느 날, 한 토끼가 강가를 걷고 있었어요.

•
정정정정 정
정정정정 정정정정 정정정정
정정정정 정정정정 정정정정 정정정정
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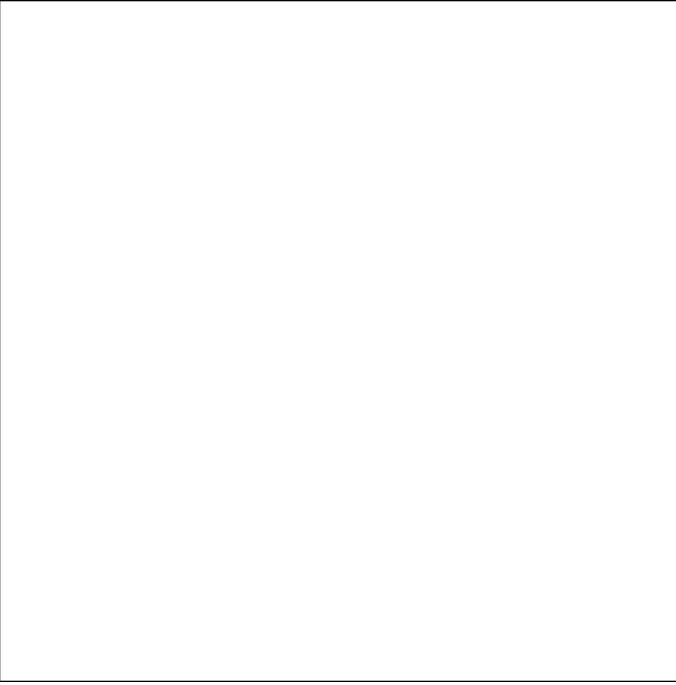
하마는 토끼가 자기 옆에 있다는것을 모르고 토끼의 발을 밟아 버렸어요.
토끼는 비명을 질렀고 하마에게 소리쳤어요, “야 이 하마야! 너 지금 내 발 밟고 있는거 안보여?”

토끼는 하마의 머리가 타서 좋았어요. 그래서 지금까지도 하마는 불이 두려워서 물밖으로 잘 나오지 않는 거래요.

을
이야기

공연장을 찾았지만 예상과는 다른 풍경이었다. 관객들은 대체로 노년층으로 보였고, 그들은 대부분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며 즐거워하는 모습이었다. 한 여성 관객은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부르며 “여기서는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 춤을 추는 게 맞지 않나요?”라고 말했다. 그녀의 말에 다른 관객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웃음을 터트렸다.

“여기서는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 춤을 추는 게 맞지 않나요?”라고 말하는 여성 관객은 노년층으로 보였지만 그녀의 표정은 젊어보였다. 그녀는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부르며 “여기서는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 춤을 추는 게 맞지 않나요?”라고 말했다. 그녀의 말에 다른 관객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웃음을 터트렸다.



그러고는 토끼가 불에게 다가가 말했어요, “저 하마가 풀을 먹으려고 물에서 나오면 불로 태워줘. 재가 나 밟았어!” 불이 대답했어요, “그래! 내 친구 토끼야. 너가 하라는 대로 할께.”

잠시후, 하마는 강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풀을 먹고 있었는데, 갑자기 불이 났어요. 그 불꽃이 하마한테 불어서 하마의 털을 태우기 시작했죠.